

다문화상담을 위한 미술치료사의 인식과 다문화 감수성에 관한 실행연구

An Action Research on Multicultural Sensibility of an Art Therapist in Counseling for Immigrant Adults

박한울* ■ 김선아**

Hanul PARK ■ Sunah KIM

초 록

한국 사회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함께 공존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부딪히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심리적 호소문제와 더불어 더욱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담영역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이 확대되고, 대상의 범위도 넓어진 만큼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상담 안에서 미술치료사가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를 만나면서 다문화 감수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행연구를 통한 미술치료사의 인식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다문화'라는 내담자의 배경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며 내담자의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를 읽어내는 데에 한계를 느끼며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둘째, 다문화 내담자가 가진 많은 '이름들' 안에서 연구 참여자는 내담자의 정체성이 가진 복잡성을 인식하며 문화적 감수성을 갖게 되었다. 셋째, 미술치료를 통해 내담자는 '언어'에 대한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였으나, 오히려 연구 참여자는 이것을 간과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동일한 위치에서 내담자의 강점과 능력을 바라봐야 하는 다문화 상담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주제어: 다문화 상담, 미술치료사의 인식, 다문화 감수성, 실행연구

ABSTRACT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process of coexistence of people from various cultures in Korea society. In the past, society and economic difficulties to adapt to Korean society have been more complicated recently, along with psychological problem. As a result,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has expanded in the counseling domain, and the scope of the subject has expan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change of art therapists through action research to see how art therapists encounter culturally different clients in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how multicultural sensitivity changes and grow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ree-fold. First, the research participants focused on the client's background of 'multiculturalism' and faced a challenge in reading the client's verbal and non-verbal messages which pointed to insufficient cultural competence on the end of research participants. Second, in many 'names' of multicultural clients, research participants recognized the complexity of the client's identity and became culturally sensitive. Third, through art therapy, the client recognized her strengths about 'language'. However, since the research participants realized that they overlooked it, they clearl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ulticultural counseling.

KEY WORDS: multicultural counseling, recognition of art therapists, multicultural sensitivity, action research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14975)

*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제1저자, cw04@naver.com

**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sakim22@hanyang.ac.kr

I. 서론

21세기는 글로벌 시대라 부를 만큼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살아간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터와 학교 등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다른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6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2015년 기준 89만 명이며 총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00만 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 수는 최초 조사 연도인 2006년 536,627명에서 2015년 11월 1,711,01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행정자치부, 2016). 이처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게 되면서 정부에서도 경제적·교육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심리적 지원에서도 점차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다문화 현상에 대한 관심이 20세기 말부터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문화는 하나의 핵심적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한재희, 2010). 또한 상담현장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소를 이해할 수 있는 상담사의 능력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여성가족부(2010)의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치료의 특성은 단일한 문제보다는 여러 요소들이 보다 다면적,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 여성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및 고부간에 상호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심하게는 인권문제로도 이어진다. 또한 본국으로의 과도한 송금이나 부모형제 초청 요구와 같이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부간 갈등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고부갈등이나 중도입국자녀의 적응문제 등은 제도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 적응을 위한 교육 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상담사를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가족부(2010) 보고서에 나타난 다문화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및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치료사의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다문화 상담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양질의 상담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상담 및 치료전문가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특정 대상에 대한 수혜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다문화 상담의 담론을 상담 및 치료사의 전문성과 역량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복지 차원에 제공되는 기초적인 다문화 상담 및 치료가 아닌 다문화적 감수성에 기초하여 다양한 문화, 인종, 계층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상담사에 의한 전문적인 다문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다문화 상담과 관련한 학술 논문이 100여 편 이상 발표되었고,

지난 30년에 걸쳐 상담학계에서는 상담자가 다문화적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끊임없이 강조하여 왔다(한재희, 2010).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다방면에서 다문화 상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상담에 관한 연구는 내담자가 가진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상담사 및 치료사의 다문화적 역량에 관한 논의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를 해결해 가는 가운데 다문화 상담에 대한 미술치료사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 상담 및 치료적 맥락에서 다문화 감수성의 개념을 고찰하고 미술치료의 인식 변화가 다문화 상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현장에 있는 미술치료사의 다문화 상담에 대한 인식과 실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실험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다문화 상담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사의 다문화상담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이 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미술치료사가 다문화상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문화적 감수성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상담을 위한 다문화 감수성

지구화 시대에 이주와 이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라는 용어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각 나라마다 다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시기는 조금씩 다를 것이다. 다민족 국가로서 1960년대 이후 다문화 담론이 확장된 미국의 경우 다문화 상담에 대한 관심 또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1960년대 초기 임상 실재에 대한 문헌에서는 주류 집단 출신의 치료사들이 인종주의자나 그 후원자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서로 다른 문화 혹은 서로 다른 인종 관계에서 나타나는 역전이나 문화적·인종적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이후 1970년과 1980년 사이에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인종과 문화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문화적 이슈에 관한 치료사의 자기점검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Mishne, 2011). 이에 따라 국외 연구에서는 다문화상담의 효과성에 초점을 두고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사의 문화적 유능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D’Andrea & Heckman, 2008). 이와 같은 배경을 살펴볼 때 다문화 상담 및 치료는 하나의 정해진 틀이 아닌 각각의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맥락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의 되고 있는 다문화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의미와 다문화 감수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 다문화 상담 및 치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단일민족’이라는 용어가 갖는 절대적 의미가 해체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적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해마다 다문화 가정의 인구수가 높아지고, 점점 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각 정부의 부처에서도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들의 심리적 개입의 필요성 또한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다문화 상담에 관한 논의가 간학제적인 차원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박진희와 김선아(2017)는 다원주의 체제에서 다문화는 단순히 다른 문화를 가진 대상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개념적, 정치적, 세계관적, 사회 정의적 등 다면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에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다문화 상담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다문화 상담에 대한 개념은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상담연구들에서만 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효과적인 다문화 상담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다른 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김춘희와 손은령(2014)은 ‘키워드’ 검색을 이용한 다문화 상담 관련 논문들을 1993년부터 2013년도 까지 수집하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상담 연구의 흐름을 분석하여 다음의 3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다문화 상담’이라는 용어가 상담의 한 영역의 전용어처럼 사용되면서 ‘인종’, ‘국적’이라는 문화적 배경에 국한된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둘째, 2008년 전후로 다문화 상담과 관련한 연구가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영향으로 상담영역 안에서 상담자들의 주체적인 고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상담에 대한 연구영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담과정과 상담자에 대한 연구, 한국적 다문화 상담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 점차 확장되고 있는데 그 만큼 다문화 상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다문화적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 상담의 중요성은 상담자의 윤리적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상담학회(ACA)의 윤리규정과 실무 표준안(Code of Ethics and Standards of Practice)의 개정판을 살펴보면 “자신과 다른 배경 출신의 내담자를 상담할 때 상담자는 차이점들을 존중해야 한다; 내담자에 대한 지식, 인간성,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 문화와 연관된 작업들을 자신의 업무로 받아들여야 한다(APA, p. 14).” 등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Sue, Ivey와 Pedersen(2008)은 상담사들이 내담자의 문화를 고려하는 감수성이나 인식 능력을 발달시키려하지 않은 채, 단일 문화적 모델에 근거하여 접근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못하며 임상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 상담 안에서 상담사 및 치료사의 다문화적 역량은 내담자를 이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에 반응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 상담에서는 단순히 내담자의 심리적 호소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적,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인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다문화 상담은 단순히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정 대상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닌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상담은 내담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그들이 속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와 편견에 대해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Hays, 2010). 따라서 다문화 상담에서 치료사가 자신의 문화와 다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하고 그 맥락 속에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관점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2) 다문화 상담과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상담 및 치료의 개념이 가지는 복잡성을 고려할 때, 상담사 및 치료사는 문화에 대해 다면적으로 접근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나 상담 및 치료현장에서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김선아(2014)는 다문화 감수성의 개념이 인지적인 이해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정서적인 반응 즉 공감만을 뜻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인지, 정서, 감각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실천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적으로 반응하며, 다문화 감수성에 기초한 상담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다문화 감수성은 한 가지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측면에서 개념화되고 있다. Peterson은 다문화 감수성에 대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적절한 가치와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대인관계 기술과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김예랑, 우수명, 2011, p. 158 재인용). 같은 맥락에서 Hughes와 Hood는 다문화 감수성은 문화적으로 역량이 있는 행동을 일으키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로서,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각, 문화적 다양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 문화적 지식, 행동(기술과 태도), 그리고 타문화의 이해와 수용에 대한 동기(욕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하였다(김윤나, 2012, p. 16 재인용). 또한 다문화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 보다 폭이 넓으며 타문화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의 문화에 대해 배워나가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쉽게 교류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나가려고 노력하는 자세로서 다문화 감수성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옥순, 2008). 다시 말해 교육과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곧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발달 단계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Bennett과 Bennett은 둘 이상의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한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어떻게 발달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에 대한 6단계의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 단계는 문화차이 부정 → 문화차이 방어 → 문화차이 최소화 → 문화차이 수용 → 문화차이 적응 → 문화차이 통합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은 문화적 차이에 대해 부정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통합하는 문화 상대주의를 지향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다문화 감수성에 따른 인식 과정을 보여준다(구정화, 박윤경, 설규주, 2010, p. 97 재인용). 이는 문화적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문화우월주의를 가졌다가 점차적으로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다문화 상담 및 치료 안에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

2. 다문화 상담을 위한 미술치료사의 인식

현재 국내에서도 다문화 상담 대상이 확장되고 그 안에서 미술치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응, 다문화가족 부부의 의사소통 증진, 중도입국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다문화 미술치료 연구 등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상담 안에서 미술매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을 통해 알아보고 미술치료사의 역할과 인식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다문화 미술치료

우리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가정, 사회, 지역의 여러 수준에서 공존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 가정 부모와 아동이 가지는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사회적, 문화적, 심리정서적 적응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미술치료적인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다문화 대상의 미술치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경미(2016)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는 미술치료가 내면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도우며 언어로 부딪히는 위기감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정서적 불안감이나 사회적 위축감을 겪는 다문화 아동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위축감은 언어적인 문제와도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정여주(2016)는 미술치료는 상담의 방해요인 중 하나인 언어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적 도구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미술치료에서는 내담자들이 자신의 시각표현을 의식화하도록 안내하고 동행하는데 이때 미술은 시각언어를 치료적 의미로 연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미술치료사는 미술활동, 미술작품 감상 과정과 해석 및 분석 과정을 통하여 내담자의 비언어적 표현인 시각언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규진(2011)은 예술매체를 통한 작업행위가 진단과 해석을 위한 도구가 아닌 더 넓은 의미

에서 하나의 의사소통 그 자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 치료적 도구로서의 유의미함을 주장한 바 있다. 즉 미술치료에서 내담자는 미술을 통해 자신을 표출하고 드러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자체에 안에서 자기 자신과의 의사소통적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미술이 갖는 특징은 미술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시키는데 도움을 주며(양윤정, 이근매, 2010) 나아가 심리적 문제해결을 이끌어 낸다는 데에 있다. 이런 점에서 미술을 통한 정서표출은 내담자의 자기 의식화와 자기 수용과 통합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진희와 김선아(2017)는 미술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까지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재현해냄으로써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확인함으로써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미술치료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정서적, 기술적인 요소들이 다문화 치료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미술치료사의 역할과 인식

다문화 상담 안에서 미술치료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내담자가 가진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보편적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이 드러나는 현상적 차이와 사회적으로 구현된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문화를 통해 드러나는 보편성과 차이를 해명하는 작업이야말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신승환, 2008). 또한 문화는 하나의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맥락, 즉 상호맥락(intercontextuality)의 이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상담사는 내담자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적 의미에 다각도로 대응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김윤나(2012)는 미술치료 현장에서 내담자를 직접 만나고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무자들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치료사의 역할에는 내담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안에서의 개인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그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환경을 다루는 것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다문화 상담에는 문화적인 측면들을 내담자에게 가르치는 심리교육적인 측면이 포함되며(Sue, Ivey, Pedersen, 2008), 이처럼 다문화 상담에 있어서 치료사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내담자의 개인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것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내담자의 상황을 맥락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관해 최충옥, 모경환, 김연권, 박성혁(2009)은 상담사는 일반 상담과 다문화 상담을 다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적 상이성이 그들의 의식에도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상담 및 치료(multicultural counseling/therapy: MCT)의 정의에 따르면 문화적으로 유능한(culturally competence) 치료사가 지향하는 주요 목표를 3가지로 나누

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간행동, 가치, 편견, 선입견, 개인적 한계 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둘째,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셋째,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를 만날 때, 내담자에게 적절하고 밀접하며 민감한 개입 전략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다문화 상담에서의 문화적 유능성

다문화적 상담 능력 : 문화적 유능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유산에 민감하며, 차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 자신의 가치와 편견이 내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하기 • 자신과 내담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일탈로 보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드리기 • 자신에게 인종차별주의나 성, 동성애차별주의 등 기타 해로운 태도, 신념, 감정 등이 있는지 인식하기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기 • 상담과 치료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이해 갖추기 • 상담을 방해하는 제도적 장벽들에 대하여 알기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범위하고 다양한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를 정확하고 충분히 주고받아 조력 반응을 생성할 줄 알기 • 적절한 때에 내담자를 위해 제도적 개입 기술을 실시할 줄 알기 • 자신이 가진 조력 방식과 한계점의 영향을 예상할 줄 알기 •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데 초점을 두고 상담하여 환경적 개입을 이끌어 낼 줄 알기

출처: Sue & Sue, 2011, p. 74.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문화적 상담능력은 치료사가 다문화사회 안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인식, 지식, 그리고 기술을 획득하고, 개인적 수준 뿐 아니라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전문적·조직적·사회적 수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Sue & Torino, 2005). 앞서 언급한 인식, 지식, 기술 3가지 측면 중에서도 인식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데 Holcomb-McCoy와 Myers(1999)는 다문화의 인식 수준에 따라서 다문화 지식과 기술이 달라진다고 말하며, 다문화 역량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식이라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상담 안에서 상담사 및 치료사는 내담자의 다면적인 측면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인식과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실행연구

실행연구(action research)는 연구자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과의 반성적, 환원적 과정을 거쳐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문제 상황에서의 실천적 판단을 제공하는 실천지향적인 연구방법으로 실행연구에 대한 한 가지의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개방적이고 반성적인 방법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실천연구’, ‘현장연구’, ‘교사연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이명숙, 2001). 최근에는 학교 현장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점차 다양한 현장에서 실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Carr과 Kemmis(1986)는 실행연구는 자신의 관행의 합리성과 정의, 이들 관행에 대한 이해 및 수행되는 과정에서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자기-반성적 탐구의 일종이라고 하였다. 방법적 측면에서 계획, 행동, 관찰 및 반영의 순환으로 자기 반성적인 나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것이 실행연구 접근의 핵심이다. 즉, 연구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현장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과 더불어 단순한 관찰자의 입장이 아닌 참여자로서 문제 상황 속에서 자기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담겨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Kemmis와 McTaggart(1988)는 실행연구에 대한 개념으로 어떤 문제 상황 내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그 일과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황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참여자들의 자기반성적인 탐구라고 정의하였다. 즉, ‘더 나은 이해’뿐만 아니라 ‘더 나은 실천’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사회적 실천을 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영천, 201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재식(2002)은 시작 단계에서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보다는 경험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행연구의 과정을 통하여 연구의 결과로 얻게 될 치료사의 통찰 혹은 연구물이 다른 현장에서도 참고 되거나 여러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 연구절차

1) 연구 단계

본 연구는 다문화 상담에 대한 미술치료사의 자기반성적 실행연구를 위한 1차 연구로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된 프로그램과 실행을 통하여 내담자의 변화 뿐 아니라 스스로 관찰과 반성을 거친 뒤, 연구 종료 후 자기평가 및 동료 연구자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에서 연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수정된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2차 실행연구를 동일한 단계로 반복하는 순환적 성격을 가진다. 본 1차 실행연구의 1단계에서는 미술치료사인 연구 참여자가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의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2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관찰 일지와 내담자 및 연구 참여자의 성찰일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관하여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연구 참여자의 반성적 사고를 촉

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다문화 상담 과정 안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식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점 및 차기 실행 방향을 도출하는 단계로 진행하였다.



〈그림 1〉 실행연구 절차

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다문화 내담자들을 만나는 상담사 및 치료사들이 어떻게 문화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변화하는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변화의 요인을 다문화 감수성의 측면에서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현장에서 내담자를 직접 만나 상담을 하는 미술치료사로서 프로그램 과정 안에서 인식의 변화를 성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로는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정보

이름/경력/성별	박한울 / 9년 / 여
국적	대한민국
다문화 관련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캐나다에서 생활하며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함. • 한국으로 돌아와 박사과정으로 다문화교육학과에 입학하여 현재 다문화관련 공부 중. •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촉상담사로 근무함. • 몽골/중국/베트남/멕시코 등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 내담자를 만남.

한국사회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정서적 문제들이 다문화 상담 및 치료 현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주목하며, 본 연구의 현장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졌다.

내담자는 몽골에서 엄마의 초청을 받아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학령기를 보내고 중간에 다시 엄마의 결정으로 몽골로 추방당한 뒤, 2년 후 다시 한국으로 초청되어 성인이 된 현재까지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내담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 3>과 같다.

<표 3> 내담자의 정보

이름(가명)/나이/성별	원가연 / 23세 / 여
국적	몽골
가족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가 먼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옴. • 한국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 몽골 남편과는 이혼 후 두 번째 남편과 함께 지냄. •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한 명 태어남. • 두 번째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잦은 싸움이 있었고, 결국 이혼을 함.. • 그 후 엄마는 세 번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또 아이가 한 명 태어남. • 몇 년 뒤 3번째 남편과도 이혼함. • 현재 가족구성원으로 엄마, 내담자, 남동생 2명이 함께 지냄.
경제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는 청소 일을 하며 생활을 담당하고 있음. • 내담자 역시 모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냄. • 나라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생활을 함. • 가끔 친척들을 초청해 한국에서 조금씩 일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다 몽골에서 팔기도 함.
개인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살 때 한국으로 온 내담자는 두 번째 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한 비자문제로 신고하지 말라는 엄마의 말에 충격을 받고 잦은 가출과 부적응적인 모습이 나타남. • 세 번째 아빠와도 이혼하고 동생들을 자신에게 맡기는 엄마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높음. • 주변 사람으로는 가족과 일하는 곳의 외국인 노동자, 남자친구로 한정되어 있음. • 쉽게 짜증을 내고 주로 남자친구에게 화풀이를 함. • 많은 친구도 사귀고 싶고, 대학도 가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하며 현재 자신의 성격을 바꾸고 싶어 하며, 변화를 원하지만 의지가 약함.

3) 자료수집

본 1차 실험연구는 2016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 1회 총 12회기(회기 당 50분)로 진행되었다.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미술치료사 1인에게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하였으며, 다문화교육을 공부하고 상담 및 미술치료 자격증을 소지한 심리치료 9년 경력의 연구 참여자가 진행되었다. 실험연구의 행위 실천과정에서 매 회기 상담 일지를 작성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인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와 내담자는 각각의 성찰 일지를 작성하였고, 계획, 관찰, 반성의 과정에서 다문화상담 슈퍼바이저에게 1회의 슈퍼비전과 연구자 및 동료 치료사와의 3회 인터뷰를 녹취 전사하였다. 이에 대한 질적 자료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4〉 질적 자료수집 방법

구술자료	인터뷰 자료	연구자-연구 참여자와의 3회 인터뷰
		동료연구자-연구 참여자와의 1회 인터뷰
		다문화상담 슈퍼바이저-연구 참여자와의 1회 슈퍼비전
텍스트자료	현장일지	12회기별 현장 일지
	내담자 성찰일지	내담자 성찰노트 작성
	연구 참여자 성찰일지	연구 참여자 성찰노트 작성
시각자료	구체물	미술치료 작업물

3. 미술치료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치료는 하나의 기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미술이라는 매체 자체가 의사소통의 언어이자 표현의 도구이고, 자기표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미술치료사는 미술활동, 미술작품 감상 과정과 해석 및 분석 과정을 통하여 내담자의 비언어적 표현인 시각언어를 파악하고, 나아가 내담자들이 자신의 시각표현을 의식화하도록 안내하고 동행한다. 이는 시각언어를 치료적 의미로 연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미술치료에서는 치료적 요인들이 그 과정에서 상호 관계적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적 요인을 돕는 미술매체(medium)는 표현의 매개가 되어 내담자의 변화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근매, 최인혁, 2008). 따라서 다문화 내담자의 자기 인식을 통한 자기표현과 이를 넘어서 자기 수용으로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각각의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술매체를 고려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 상담과 미술치료가 결합된 형태로서 일반적인 미술치료 안에서 다문화상담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여 회기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다문화 대상이 갖는 차별성은 프로그램 활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기 안에서 내담자와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문화 상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문화적인 민감성이나 상담자의 유능성과 같은 요소들을 적극 인식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는 각 회기별 주제에 따른 미술활동을 통하여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12회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5>와 같다.

본 프로그램은 다문화 내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인 점을 고려하여 미술매체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본 연구 프로그램의 치료적 요소로서의 매체 선택은 김미진과 이근매(2015)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미술매체의 치료적 요소들을 참고하였다. 프로그램 초기에서 사용 된 크레파스와 같은 건식 매체는 접근의 용이성 및 친밀감, 자기명료화를 통한 자기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색종이,

〈표 5〉 다문화 대상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목표	회기	주제(활동)	내용
	1회기	사전검사 및 초기 인터뷰	HTP, 자아존중감 검사 및 사전인터뷰
라포형성 및 자기인식	2회기	빛속의 사람 (건식매체-드로잉)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 및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3회기	감정그래프 (건식매체-드로잉)	최근에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나의 감정변화 나타내보기
	4회기	나의 고향 (건식매체-드로잉)	나의 고향에 대해 긍정적인 요소 찾기
자기표현	5회기	색상띠 작업 (폴라주)	나의 History 표현하기
	6회기	내가 좋아하는 것 (폴라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잡지에서 골라 표현해보기
	7회기	Self-box (폴라주)	타인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 표현하기
	8회기	자화상 (폴라주)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표현해보기
자기수용	9회기	데칼코마니 (습식매체-물감)	추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마음 읽기
	10회기	나의 상징물 (습식매체-물감)	나를 상징 할 수 있는 이미지 표현하기
	11회기	희망나무 (습식매체-물감)	미래의 내 모습을 떠올리며 상징적인 나무 표현하기
	12회기	사후검사	HTP, 자아존중감 검사 및 사후 인터뷰

잡지와 같은 종이매체는 색채에서 오는 다양한 감정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며 다양한 기법을 통한 자기표현이 용이하다. 프로그램의 후반에 사용 된 물감과 같은 습식매체는 창조성을 자극하고, 다양한 심리적 자극은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매체에서 오는 심리적 속성들을 참고 하여 프로그램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김미진과 이근매(2015)의 연구에서는 미술 매체가 가지고 있는 매체별 심리적 속성이 내담자의 정서적 반응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미술치료과정에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주 호소 문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미술 매체가 주는 치료적인 요인에 대해서 위와 같이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도 자기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딱딱한 매체에서부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매체를 통하여 자기표현 및 표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단계별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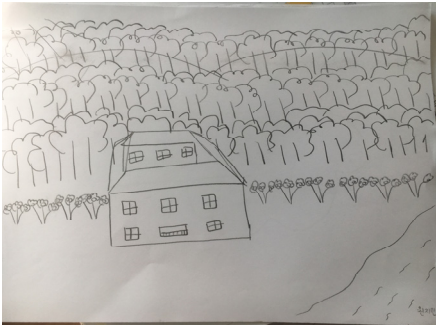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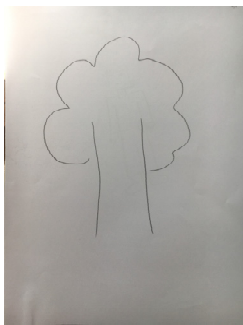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다문화 상담을 통하여 미술치료사의 인식과 태도가 다문화 감수성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를 치료사의 인식변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다문화 상담을 위한 미술치료사의 역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다문화 상담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코딩 및 범주화를 통해 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문화 상담 및 치료를 통한 일지와 연구 참여자의 성찰일지, 연구자와의 인터뷰 및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내용을 모두 전사한 자료에서 개념을 추출하고 읽어낸 각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묶어 하위주제로 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도 연구자 및 동료 연구자의 검토와 피드백이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각각의 범주들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 있는 중심 주제를 도출하여 총 3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도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계로서의 문화적 ‘차이’

본 연구에서 치료사는 내담자가 가진 주 호소문제와 치료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미술치료를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미술치료를 진행할 때부터 ‘다문화’ 내담자라는 점을 의식하여 치료사와는 다른 문화 배경에 더 많은 초점을 맞췄다. 또한 내담자가 표현하는 그림과 말 속에서 계속해서 ‘몽골’이라는 문화적 요인을 찾으며 이를 구분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치료사 스스로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몽골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곧 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첫 HTP 그림검사에서도 집 뒤로 그려진 나무들을 보면서 “몽골에도 이렇게 나무가 많은가요?”, “몽골을 떠올리면서 그리셨나요?”라고 물었으며, 나무그림에서도 초원에 있는 통나무라는 내담자의 말에 “몽골에 있는 건가요?”라고 묻는 등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몽골’이라는 나라에 한정되어 그림검사에 관한 질문이 진행되었다.

〈표 6〉 HTP 그림검사

HTP_집	HTP_나무
	

연구 참여자는 미술치료 과정에서 내담자가 표현해 내는 그림에서 뿐만 아니라 대화에 있어서도 출신 국가의 문화적 배경을 의식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한 대화내용에서도 “몽골에서는 oo씨 나이면 결혼이 빠른 게 아니죠?” 라고 묻거나, 내담자 엄마의 잦은 이혼과 관련해서도 몽골의 혼인제도에 대해서 묻는 등 몽골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의식한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Sue(1998)에 따르면 내담자의 문화에 대한 치료사의 지식이 깊고, 경험이 넓을수록 내담자에게 하는 질문이 더욱 정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치료사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의 언어적, 시각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몽골’이라는 문화적 배경에 기인한 것인지, 내담자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 관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으며, 이는 내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도 장애로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참여자의 고민은 연구자와의 심층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연구 참여자: 상담을 할 때, 내담자 개인을 놓고 봐야 하는지,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하는지, 주제를 정하거나 상담을 할 때에도 계속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담자가 어떤 대답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내담자의 문화가 반영된 것인가?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 된 것은 집이나 나무 사람을 그릴 때 그 나라에서 학습된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기존의 그림 해석대로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도 그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그 의미인지, 아니면 내담자의 문화에서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1차 인터뷰 내용)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적 상담에서 상담사 및 치료사는 인식, 지식, 기술의 3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상담사는 상담에 대한 기술이나 내담자를 바라보는 태도 및 인식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 지식을 가지는 것, 그리고 내담자가 한국에서 적응하며 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정보들을 알고 적절한 상황에서 제시해줄 수 있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Sue와 Sue(2011)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활 경험과 문화적 가치에 적절한 치료방법을 사용하고 상담목표를 설정할 때, 유능성은 가장 잘 증진된다고 하였다. 이는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를 정확하고 충분히 주고받으며, 적절할 때 내담자를 위해 제도적 개입 기술도 실시할 줄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는 치료 상황에서 내담자에게 계속해서 몽골에 대한 정보를 구해야 하는 상황 뿐 아니라 내담자의 비자 관련 문제, 학교 진학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내담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내담자의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는 방문비자로 엄마의 동거인 자격으로 들어온 경우인데 그럴 경우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고, 작년에 몽골 국적을 포기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언제 승인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구하는 데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고, 외국인 신분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를 진학할 때에도 여러 절차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 연구 참여자는 오히려 내담자에게 정보를 구하고 되묻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문화적 해석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한계점이 나타났다.

2. '이름'과 복합적 정체성

다문화 상담 및 치료에서는 일반 내담자와는 다른 사회문화적, 제도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다문화 상담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김민지(2015)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모국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한 후 본인 선택에 의해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는 것과 달리 다문화 자녀들의 경우에는 성장과정에서 이중문화의 정체성을 부여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생기는 혼란과 갈등은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며 스스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Hays(2010)는 치료사가 내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은 곧 내담자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특정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미술치료 프로그램 안에서 내담자의 정체성에 대해 인식했던 순간은 바로 내담자의 '이름'에 대한 부분이었다.

학령기에 한국과 몽골을 오가며 교육절차를 밟지 못했던 내담자는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초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떼러 갔다가 초등학교 학력에 관한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유는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외국 이름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 당시 두 번째 아버지의 성을 딴 '방00'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 이름 또한 법적으로 개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면서 내담자는 “학교를 헛다닌 것”이 되었고 “시간을 낭비”한 것뿐만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 삭제되는 경험을 한 것이다. 현재는 엄마의 한국 성을 따서 '원00'란 이름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도 지금 이름 외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름을 골라서 생활을 하는 등 사회 제도와는 상관없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와 내담자의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연구 참여자: 그럼 지금 한국 이름이 몇 개인 거예요?

내담자: 제 이름은 파이엔양오가이고, 한국 이름은 여러 개 있어요.

...

연구 참여자: 본인도 헛갈리겠어요. 이 이름도 '나'이고, 저 이름도 '나'인거잖아요.

내담자: 이름이 엄청 많아요. 원◇◇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연구 참여자: 그건 누가 지어줬어요?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내담자: 네. 그리고 원△△이라는 이름도 있었는데 이 이름은 조금 싫어진 데가 있었어요.

연구 참여자: 왜요?

내담자: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내 이름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어차피 가명 이기도 하지만 왠지 싫더라고요.

...

연구 참여자: 근데 이렇게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지내면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어때요? 혼란스럽거나 그렇지 않나요?

내담자: 네

연구 참여자: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이 없었어요?

내담자: 네 없었어요.

(8회기 상담일지 내용)

내담자는 여권에 적힌 10자가 넘는 몽골 이름에서부터 입양서류에는 5자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프로그램 등록 상 5자까지 밖에 되지 않아 두 번째 아빠의 성을 따라서 지은 한국 이름으로 등록하였는데, 엄마와 두 번째 아빠가 이혼하는 순간 호적에 입양되었던 부분은 없어지고 본인의 존재는 다시 엄마의 동거인으로 되면서 엄마의 한국성을 따라 이름을 또 바꾸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내담자도 그냥 여기서 부르고 싶은 대로 이름을 부르며 지내게 되었다는 담담한 이야기 속에서 연구 참여자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내담자의 정체성이 가지는 복잡성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 것이다.

몽골과 한국의 국경을 넘나들며, 한국인 아버지와 몽골인 어머니의 결혼과 이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내담자에게는 여러 개의 이름이 주어짐과 동시에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 장인실 외(2012)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을 돕는 것이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 이중문화에 대한 인정과 부모가 속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긍정적 자아정체성 형성의 밑거름이 된다고 하였다.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인종 또는 민족의 공존을 상정하게 될 때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회기를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는 여러 번 내담자의 이름을 불렀지만, 회기 중반에서야 내담자의 새로운 ‘이름들’에 대해 알게 되면서 문화적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한 주체로 내담자를 인식하게 되었다. Brown(1990)은 기준점에 따라 같은 정체성이더라도 한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치료사가 다문화 내담자의 정체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인 치료사가 한국인으로서의 자신(self)과 몽골인, 즉 타인(other)으로서의 내담자라는 대립 구도의 이중 문화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문화적 감수성을 획득하게 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3. 자기 존중의 ‘언어’

본 연구에서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내담자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안에서 내담자는 미술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였고 연구 참여자는 내담자가 표현한 이미지를 스스로 바라보고 설명하여 자기 인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초반에 내담자는 자신을 드러내고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평가와 남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기 중기부분에서 자기표현에 관한 작업 후 대화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스스로 다시 평가하고 자신을 인식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 내담자: 음, 뭐라고 해야 하지? 사람이 너무 나를 좀 좀.. 과대평가 아니고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왜 그런 거 같아요?
 내담자: 아직 너무 어린애 같이 구니까. 성격도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린애 같다고...
 연구 참여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내담자: 제 주변사람들이 그랬었어요....그리고 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저는 과대평가랑 과소평가랑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 같아요. 중간이 없고
 연구 참여자: 과대평가는 주로 누가 해요?
 내담자: 가끔 제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가 거의 나를 만능인처럼 하는 엄마도 그렇고 그렇게 좀 엄마주변에서 제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이 저를 만능인처럼 생각을 해요.
 연구 참여자: 그럼 △△씨를 과소평가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담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몽골 언니들이요.
 연구 참여자: 음~ △△씨는 어떤 부분인거 같아요? 두 곳에서 굳이 △△씨가 선택을 하자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본인은 과대평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과소평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내담자: 전 둘 다 아닌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씨는? 아 어~ 조금 더 가까운 쪽은?
 내담자: 없어요.
 연구 참여자: 스스로는 어디까지 안거 같아요? 본인이?
 내담자: 그냥 과소평가는 여기 있고 과대평가가 여기 있으면 딱 중간이에요 저는
 연구 참여자: 5:5. 만약 여기 0부터 10까지 있으면 딱 5점으로.
 내담자: 네 가끔 제가 없어요. 가끔 이렇게 과대평가 받을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과소평가를 받을 사람도 아니거든요. (7회기 상담일지 내용, 굵은체 저자 강조)

위의 대화 내용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의 자기 인식은 <표 7>의 7회기 Self-Box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바깥에 붙여진 것과 안쪽에 붙여진 이미지의 색에서 오는 유채색과 무채색의 대비는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는지를 나타내며, 동시에 객관화 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이전까지 다른 사람의 평가로서 자신을 인식하였으나, 회기 중반이 지나며 자아존중감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언어에 대한 관심이나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은 <표 7>에서 6회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설명해 내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이러한 내담자의 모습은 현재 내담자가 놓인 문제 상황에 집중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학업, 생활 관리 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던 연구 참여자에 비해 오히려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담자는 외국인 전형이 아니라 “공평”하게 기초를 다져서 자신의 능력으로 대학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 자신이 언어에 관심과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자신이 처음 다른 사람에게 잘한다고 칭찬받았던 부분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저 한국말을 잘한대요.”, “영어도 잘하고 싶고, 스페인어에도 관심이 있어서 헬로톡이라는 사이트에서 언어교환도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등 내담자는 ‘언어’에 대한 관심을 여러 번 나타내었다. 회기의 후반에는

〈표 7〉 6회기, 7회기 미술치료 작품

6회기_플라주(내가 좋아하는 것)	7회기_Self Box
	

“외국어 대학을 갈 거예요.,” “저는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세계의 모든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모든 나라에 갔을 때 내가 필요하게” 라고 말하며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나아가 자신의 존재의 필요성을 언어로 나타내었다.

이 사례에서 자신의 결과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부분이 ‘언어’의 측면이라는 점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단순히 기술적인 언어능력의 발견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권을 오가면서 획득할 수 있었던 자신만의 강점(asset)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례의 경우 첫 만남에서부터 언어적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내담자가 한국어를 구사하다보니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한다고 했던 ‘언어’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미술치료사인 연구 참여자는 당연한 것으로 간과해버렸음을 깨닫게 되었다. 다문화 상담과 미술치료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문제 상황이 가지는 긍정적인 힘을 인식하는 것은 수정주의나 동화주의의 관점을 넘어서는 자기존중의 출발이 될 수 있다. 특히 다문화 담론에서 언어의 문제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함을 고려할 때 내담자가 자신의 ‘언어’를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은 의미 있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V. 맺음말

다문화 사회가 급속도로 넓게 형성되면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1차적인 의, 식, 주를 위한 지원을 넘어 심리·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상담 및 치료의 현장에서도 이들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형성된 다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닌 문화 상대주의의 자세로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치료사이기 이전에 단일민족이라 가르침을 받고 자라온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장인실 외(2012) 또한 상담자는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다문화 상담에서 상담사의 유능성을 나타내는 인식, 지식, 기술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미술치료사의 다문화 상담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초기 설정한 연구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미술치료사의 다문화상담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이 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연구 결과로 1차 실험연구는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미술치료사와 내담자 간의 문화적 차이가 제시하는 해석과 상호 이해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연구 참여자는 내담자를 둘러싼 외부적인 배경들에 주목하면서 현재 내담자가 놓인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모습에서 점차 내담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 또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에서도 연구 참여자가 다문화 대상이 갖는 특수성이 아닌 보편성에 주목하여 ‘다문화’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보다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내담자의 사회적, 개인적 문화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이 수정 보완 될 필요가 있으며, 연구 참여자의 인식 변화는 상담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따라서 2차 실험연구에서는 미술치료의 활동 자체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내담자의 변화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미술치료사가 다문화상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문화적 감수성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에 관한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3가지의 측면으로 변화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계로서의 문화적 ‘차이’로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는 ‘몽골’이라는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주 호소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 감정, 행동까지도 모두 ‘몽골’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하였다. 두 번째는 내담자의 다양한 ‘이름’에서 오는 복합적 정체성에 주목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연구 참여자는 내담자의 외적요인이 아닌 내적요인에 집중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기 존중의 ‘언어’로서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언어 능력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연구 참여자는 다문화적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장점과 능력에서 출발해야 하는 다문화 상담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이는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문화 상대주의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담자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2차 실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첫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오히려 차이를 통해서 내담자와의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즉 ‘차이’ 자체를 미술 치료사와 내담자 간의 공동의 관심 주제로 설정하고 이를 동등한 관계에서 탐구해 나갈 때에 내담자의 자신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정되거나 유일한 것이 아니라 가

변적이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개념으로서 정체성의 문제를 다문화 상담 및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Hall은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변화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오경석 외, 2007, p. 118 재인용). 본 연구 결과에서 연구 참여자가 내담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적 요인에 집중하게 되면서 다문화 대상으로서 내담자에 대한 접근이 전환되고 문화적 인식이 확장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내담자 스스로가 타인의 관점이 아닌 주체적인 시점에서 본인을 평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미술치료사 또한 평가자로서 내담자의 표현과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시선을 자신에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로서 상담에 임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상담 안에서 내담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미술치료사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다문화 상담 및 치료에 요구되는 다문화 감수성이 외부의 정보나 교육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미술 치료사에게 내재된 가정, 편견, 한계 등을 자신의 실행 과정에서 스스로 인식하는 가운데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다문화 상담을 위한 상담사, 치료사, 미술 치료사의 역할과 문화적 감수성에 관한 연구가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정화, 박윤경, 설규주(2010).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 김경미(2016). 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또래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 김미진, 이근매(2015). 미술치료의 치료적 요인별 효과적인 미술매체에 관한 질적 연구. 미술치료연구, 12(4), 1085-1110.
- 김민지(2015).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9(2), 197-231.
- 김선아(2014). 미술 교사의 다문화 감수성 개발을 위한 교사교육의 실천적 방안 탐색. 조형교육, 49, 55-73.
- 김영천(2013). 질적 연구방법론 II: Methods.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예랑, 우수명(2011). 국제 사회복지기관 실무자의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9, 155-184.
- 김옥순(2008). 한·중 예비교사들의 문화간 감수성 비교연구. 비교교육학회, 18(1), 193-217.
- 김윤나(2012). 다문화 감수성, 인권인식, 임파워먼트의 비교분석을 통한 인권교육 실천 방안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일반인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5(3), 15-32.
- 김춘희, 손은령(2014). 국내 다문화상담연구 현황. 상담학연구, 15(6), 2209-2223.
- 박진희, 김선아(2017).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미술교육에 관한 실행연구: 소외계층 아동 대상 집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형교육, 52, 125-148.
- 신승환(2008).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비평. 서울: 한길아트.

- 양윤정, 이근매(2010). 단기집단미술치료가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6(2), 1-20.
- 여성가족부(2010).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사 양성교육교재. 서울: 여성가족부.
- 오경석, 김희정, 인선옥, 박흥순, 정진현, 정혜실...강희복(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 이근매, 최인혁(2008). 매체경험을 통한 미술치료의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명숙(2001).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통한 교육 실제의 개선, *초등교육연구논총*, 17(2), 381-408.
- 장인실, 김경근, 모경환, 민병곤, 박성혁, 박철희...황매향(2012).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학지사.
- 정여주(2016). 미술치료에서 미술의 특성과 창의적 과정의 치료적 의미. *미술치료학회*, 23(5), 1221-1237.
- 조재식(2002). 교육과정 실행과 교사의 일 : 현상학적 접근. *교육과정연구*, 20(1), 229-252.
- 최규진(2011). 미술치료적 의사소통의 특성과 다문화교육에의 적용 가능성. *독어교육*, 52, 311-330.
- 최충욱, 모경환, 김연권, 박성혁(2009).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경기: 양서원.
- 한재희(2010). 한국적 다문화상담. 서울: 학지사.
- 행정자치부(2016).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 통계청.
- Brown, L. S. (1990). Taking account of gender in the clinical assessment interview.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1, 12-17.
- Carr, W., & Kemmis, S. (1986). *Becoming Critical: Education, Knowledge and Action Research*. Australia: Deakin University Press.
- D'Andrea, M., & Heckman, E. F. (2008). A 40-Year Review of Multicultural Counseling Outcome Research: Outlining a Future Research Agenda for the Multicultural Counseling Move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6(3), 356-363.
- Hays, P. A. (2010). 문화적 다양성과 소통하기: 다문화상담의 이해(방기연 역). 서울: 한울. (원저 2008 출판)
- Holcomb-McCoy, C. C. (1999).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 Development*, 28(2), 83-97.
- Mishne, J. M. (2011). 다문화 상담의 새로운 접근(유영달, 강연정, 김종운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2 출판)
- Sue, D. W., Ivey, A. E., & Pederson, P. B. (2008). 다문화상담의 이론과 실제(김태호 외 공역). 서울: 태영출판사. (원저 1996 출판)
- Sue, D. W., & Sue, D. (2011). 다문화 상담 이론과 실제(하혜숙, 김태호, 김인규, 이호준, 임은미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8 출판)
- Sue, S. (1998). In search of cultural competence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American Psychologist*, 53, 440-448.

논문접수	2017년 10월 15일	논문심사	2017년 10월 30일	게재승인	2017년 11월 10일
------	---------------	------	---------------	------	---------------